

미용대회 작품헤어 컬러분석

-1980년대 이후 대회작품을 중심으로-

유 옥 이*, 백 선 영, 강 상 모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향장생물학 박사과정*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향장생물학 강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향장생물학 교수

작품머리에서 컬러는 작품과 디자인발상에 생명을 주는 큰 역할을 한다. 대회에서 빗질, 창의력, 작품의 조화 등 헤어작품을 완성하는데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컬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대회의 순위가 결정 되어 질 만큼,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

미용 산업은 생활예술의 한 분야로써 문화적 수준이나 사회적 이미지 표현과 국민건강의 한 면을 담당하고 있다.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욕구의 충족은 하이패션의 감성을 자극하고 미용 산업에 있어 조형성을 토대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의 창조는 통일된 조화와 새로운 트렌드의 부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미용대회는 결집된 트렌드의 각축장으로써 미용아티스트들에 의해 새로운 테크닉, 컬러, 테마 등이 주제가 되어 예술인들의 기량을 발휘한다.

대회 종목은 크게 Creative style과 Hairbynight, Cut, Long hair up, Long Hair open 의 작품으로 나뉘며 대회에서 사용되는 미용기술은 선천적 구조인 두개골 형태에 따른 얼굴과의 유기체적인 관련성을 포함시키며, 조화, 비율, 응용성을 기초로 한 디자인의 실용성과 조형성 독창성 등을 중점으로 인체에서의 예술적 기교는 긴 시간이 요구되는 복합성을 가진 고도의 테크닉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대회 출전 헤어스타일을 연도별(1901-현재)로 분류하여 대회머리 작품에서 나타난 컬러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 견련논문, 잡지, 사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작품사진자료는 미용경기대회 스타일의 특정성과 안전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미용잡지에 나타난 사진자료와 세계 미용대회(O.M.C) 자료 등을 선정하여 국내 및 세계 미용대회 출전된 작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미용대회의 의의는 디자인을 내포한 작품스타일의 창작성에 대해 미용산업 전반적 입장에서 분석이 행해질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한 또 다른 창의력증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실무에서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세계화에 따른 미용문화를 추구하는 학문적인 기술화를 가속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미용대회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작품을 통해 컬러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컬러의 변화와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시대적 배경과 또한 연도별 트렌드에 맞는 헤어컬러를 연출함으로써 헤어디자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석하였으며 컬러가 미용대회의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회출전 헤어스타일을 연도별 (1981~현재)로 수집하여 대회 작품머리에서 나타난 컬러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의 전체적인 컬러의 흐름은 브라운 계열의 원톤컬러를 기본으로 부분적으로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주었고, 크리에이티브와 헤어바이나이트 종목에서는 전체적으로 금발색을 주조색으로 하는 원톤컬러로 이루어졌다.

둘째, 1990년대는 다양한 헤어컬러가 대중화되었으며 미용경기대회작품에서도 투톤이상의 컬러가 나타났으며, 중성컬러의 등장으로 크리에이티브와 헤어바이나이트 종목에서는 레드오렌지에서 하이라이트까지의 점증적인 그라데이션 컬러가 등장하여 테크닉한 기술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셋째, 2000년대는 모든 상업적인 컬러가 허용되며 급속도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진 작품에서 색채의 대비효과, 방향성, 운동감, 볼륨감, 인덴테이션등의 다양한 테크닉으로 작품과 입체적 효과와의 조화를 이루어 강력함을 나타내는 역동적인 디자인 구성원리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작품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컬러의 차이점을 볼 수 있었으며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컬러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작품활동을 하는 많은 헤어아티스트들에게 컬러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창조적인 컬러 및 작품활동을 하기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며 창조적인 작품활동을 기대해 본다.